

애경유화, 특수첨가제 사업 진출

ITA 및 Polyester Polyol 상업생산 ... 매출 50억- 100억원 기대

플라스틱 첨가제인 가소제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애경유화가 특수첨가제 사업에 새로 진입한다.

애경유화(대표 전기철)는 2002년 하반기에 특수첨가제인 ITA(Itacon Acid)와 Polyester Polyol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타콘산은 종이에 잉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이며, Polyester Polyol은 냉장고 내부단열을 위해 첨가해주는 제품이다.

애경유화는 신제품 생산을 위해 2001년부터 40억원을 투자해 시험생산을 마쳤는데 기존시설을 활용해 특수가소제 제조를 확대한다.

특히, 제조공정이 사탕수수를 발효해 이타콘산을 분리추출하는 방식으로 처음 PA(Phthalic Anhydride) 제조 공정과 연계한 일괄생산이 가능해져 경제성이 높다.

애경유화는 특수첨가제 중 이타콘산을 연간 500톤, Polyester Polyol을 4800톤 생산할 예정이며 50억-1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애경유화는 현재 5억원 정도인 특수가소제 사업을 2003년까지 170억원대로 확대하고, 전자부품·반도체 세정제 시험생산도 조기에 끝낼 방침이다.

애경유화는 이타콘산과 Polyester Polyol 생산을 시작으로 특수첨가제 분야에서 2004년까지 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등 총매출을 3000억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애경유화는 2002년 2/4분기에 63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상반기에 1312억원의 매출했고 영업이익도 2001년 상반기에 비해 200-300% 늘어난 150억-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8/ 07>